

하계 충남해역 이안류 발생에 따른 피해 대비

윤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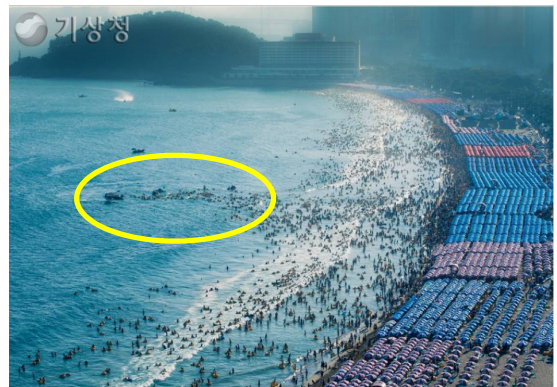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, jjyoon@cni.re.kr

- ◇ 매년 여름철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이안류(역파도, 바다쪽으로 끌고나가는 파도)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- ◇ 충남해역에는 대천해수욕장 및 태안반도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, 이에 따른 사전 피해 대비가 필요

□ 이안류 발생 피해 현황

- 해운대·중문·낙산·대천해수욕장 등 해안선이 길고 단조로워 쇄파대가 넓은 특징을 가진 주요 해수욕장에서 특정 파고, 파향, 파주기 조건에서 연중 수시로 발생하며, 그 지속시간은 5분 내외로 짧음.
- 도내 대천해수욕장에서는 2010년 7월, 이안류에 휩쓸려 2명의 사망자 발생.
- 해류의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며, 해안과 수직으로 먼 바다 쪽으로 발생.

▶ 이안류에 휩쓸린 피서객 피해 사례 (해운대 해수욕장)



출처 : 부산시 소방본부, 기상청

- 주로 해수욕객이 몰리는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되며, 해수욕장 인명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.

□ 이안류 대처 방법

- 이안류 발생이 빈번한 곳, 바닷물의 색깔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, 거품·해조 등이 바다를 향해 일렬로 꾸준히 움직이는 곳 등을 피하고, 구조요원이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며, 나홀로 수영 및 야간수영은 피해야 함.
- 이안류에 휩쓸린 경우, 당황하지 말고 튜브 등을 이용해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릴 것.
- 이안류의 흐름에 대항하지 말고, 해안가에 45도 방향으로 헤엄쳐서 이안류의 흐름에서 벗어날 것.

▶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대처 요령



출처 : 소방방재청

□ 이안류 피해 대비

-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운대, 대천, 중문 해수욕장의 이안류 모니터링 및 예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발생 대비.

▶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및 3일예보 정보 활용 (대천 해수욕장)



대천 해수욕장(충청남도 보령시 대천5동)

2015년 07월 16일 08:00 발표

요소		오늘(16일)				내일(17일)				모레(18일)			
		09	12	15	18	09	12	15	18	09	12	15	18
이안류	위험												
	경계												
	주요 안전												

출처 : 국립해양조사원, 기상청

- 입사파고 1~1.5m, 입사파주기 10초 정도의 일방향 장주기(너울성) 파랑 조건에서 돌발성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울성 파고가 높을시에는 특히 주의를 요함.
- 해수욕장 이용객의 경우 이안류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돌발 이안류의 발생이 잦은 곳은 입욕을 피하며, 해수욕장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.
-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을 이용하고, 해수욕장 폐장이후에도 이안류의 발생위험은 여전하므로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주의를 요함.